



5면

취업·주거·육아 청년이음전주에서

전주매일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음 5월 29일) 제30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돈 버는 수산양식 기술 개발”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찾아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안전성 확보 중요”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도지사 직 인수위원회 농생명산업지원단장(단장 라승용) 및 IT팀 일원은 지난 24일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고창군 소재)를 방문해 수산분야 현안문제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김 당선인과 인수위 위원들은 도내 수산양식 종자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을 건립 중인 수산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바지락 종자생산 연구 상황을 점검했으며, 관계 연구사들과

직접 종자생산 작업에 참여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바지락 및 흰 다리 새우 등 종자의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는 등 종자 확보가 도내 수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 종자생산 및 양식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양식업인이 종자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돈 버는 수산양식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도지사가 인준하는 안전한 양식장 인증제도 조기 정착 및 방사능·중금속 등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등 도민이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성 조사체계를 촘촘히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수산업은 미래 먹거리인 농생명식품산업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종을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표준 양식장을 확산 보급하는 등 전북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지난 24일 민생·경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를 찾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제12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가 지난 25일 효자동 바울센터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곤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회장, 경연 참가자 및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2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개최

상상력 듬뿍 ‘매직 쇼’ 웃음·감동 선사

바울센터 그레이스홀서... 미술 꿈나무 10명 참가
카드·공·스카프 등 활용 다채로운 묘기 선보여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회장 김승곤)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주매일신문이 후원한 ‘제12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가 지난 25일 효자동 바울센터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화보 16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지난 해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미술대회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지난 4월 해제됨에 따라 올해는 대면으로 진행됐다.
방송인 유진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경연대회에서 전국 각지에 온 어린이·청소년 미술 꿈나무들 10명이 참가해 카드·공·스카프·미술 지팡이 등을 활용해 자신들의 묘기를 선보였다.
심사위원으로 소경화미술단 대표를 지내고 있는 소경희 대표와 이희만 행복을꿈꾸는 미술단 단장이 참여했다.
가장 먼저 무대 위에 오른 노유찬(전지디자인고 1)군이 카드와 미술 지팡이를 활용한 묘기를 선보여 경연 초반부터 이목을 끈 뒤, 임재하

(삼성초 1)양이 피아노·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꽃과 손수건을 활용한 미술 쇼를 선보여 관객들에 감동을 선사했다.
세번째로 무대 위에 오른 이경근(덕유중)군과 다음 무대에 오른 이정원(동북중 3)군은 힘있는 미술 쇼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박현(문성고 1)군도 스카프를 미술 지팡이로 변환하는 묘기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경연에서 꽃과 카드를 활용해 멋진 공연을 선사한 이주열(천호초 3)군에게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 갈채를 보내왔다.
조용한 음악소리에 맞춰 절제된 몸짓으로 스타트를 끊은 조민재(성의고 3)군은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무대를 마무리 지었다.
이어 무대 위에 오른 김윤찬(아탑중 3)군은 빨간 스카프와 공을 활용해 밝고 활기찬 배경음악과 함께 재치있는 묘기를 선보였다.
멀리 전남 광양에서 올라온 ‘꼬마

미술사 김혜리(제철초)의 스키타와 물병을 활용한 독특한 묘기는 관객에 즐거움을 안겨다 줬다.
선글라스 변환 등 출발부터 남다른 묘기를 선보였던 최민재(프리참가자)군은 마치 프로미술사가 미술쇼를 선보이듯 강렬한 묘기로 경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어, 프로미술사 두창준씨의 감동적인 축하무대도 이번 경연에 즐거움을 더했다.
이번 경연 영예의 대상은 최민재군에게로 돌아갔다.
대상을 차지한 최민재군은 “이번 대회에 대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뒤로 김윤찬군이 최우수상을, 이정원군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주열군이 장려상 이경근군이 인기상을 수상받았으며, 노유찬군은 특별상을 수상받았다.
김승곤 회장은 환영사에서 “12회째 맞이하는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를 통해 평소 갖고 있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꿈을 키워가는 잔치 한마당이 되길 기원한다”며 “참가한 청소년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산악용 친환경 열차 시대 연다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철도기술연구원 시범사업 선정
2026년까지 278억 투입 고기 삼거리~댐 구간 시범노선 구축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리산 일대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시행하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으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산악용 친환경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의 인위적 개발 없이, 기존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범노선(1~1km) 건설을 통해 산악철도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이다.
산악용 운송시스템 개발로 급경사

(최대 10.2°), 급곡선(최소 반경 10m)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하고,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 도로 통행이 금지되는 지역에서도 산악 벽지 주민의 교통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연구개발 검증을 위하여 2026년까지 국가 연구개발비 2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리산 일대 고기 삼거리~고기 댐 구간(3.5km)에 차량기지 및 검수고 건설, 차량(3량 1 편성) 제작 등 시범노선(1km)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시범노선 구축에 그치지 않고 육묘장~고기 삼거리~정령치에 이르는 13km 구간에 총사업비 98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상용 운영을 위한 실용화노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동절기마다 폭설과 결빙으로 차량이 통제돼 지역주민의 이동에 제약이 많았던 구간으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2019 남원시)에 따르면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상용화 될 경우 경제성(B/C) 1.69 총 생산유발효과 1,610억원 총 고용유발효과 1,128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시범 및 실용화 노선이 건설되면 지역주민들의 교통이동권 확보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수려한 경관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큰 기대가 모아진다. /김경수 기자

높을 **高** 고창

당신이 서있는 곳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여기는, 고창입니다

구서포 쌍둥이등대

고창군 GOCHANG COUNTY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